초기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본 세대적 분별

문영권

머리말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학자들 가운데는 스코필드나 체이퍼, 라이리를 비롯한 **전통적 세대주의자들**과 다비나 켈리, 매킨토시를 비롯한 **초기 형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미래에 있을 환란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핵심적인 차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율법 세대와 천년왕국 세대 사이에 끼여드는 지상의 세대로 보는 반면에, 초기 형제들은 교회를 지상의 세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상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러한 차이는 구원과 성화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견해 차이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교회 세대가 율법 세대를 종결시켰으므로 지금 시대에 율법은 죽어 있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 죄인들을 향하여 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전파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므로 잘못되었으며,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교회는 율법 세대를 종결시킨 지상의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르시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율법이 살아있어서 죄인들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주는 유효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인들에게 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에 대해 명확히 선포했으며, 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살아서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주지만 신자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과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차이와 때로는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분하는 세대적 분별의 기초 위에서 죄로부터의 분명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주인되심, 율법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전파**했던 초기 형제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0.3.22

차례

1. 다른 학자들의 세대적 견해

2. 초기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

3. 파생되는 차이점들

부록: 초기 형제들의 분별의 교리적 위치

제1부

다른 학자들의 세대적 견해

아이작 와츠의 세대구분

•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는 아이작 와츠(Isaac Watts)가 가진 세대적 견해가 세대주의의 선구가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음

• 하지만 **아이작 와츠**는 언약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의 저작을 모은 Works of Isaac Watts (vol. 2)를 보면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시대구분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무죄 세대	행위언약의 세대
2	아담 세대	은혜언약의 첫째 세대
3	노아 세대	은혜언약의 둘째 세대
4	아브라함 세대	은혜언약의 셋째 세대
5	모세 세대	은혜언약의 넷째 세대
6	크리스챤 세대	은혜언약의 마지막 세대

스코필드의 세대주의 1

• 오늘날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회중교회 목사 **스코필드**(C. I. Scofield)의 영향을 받아 교회 세대를 비롯하여 **7개의 세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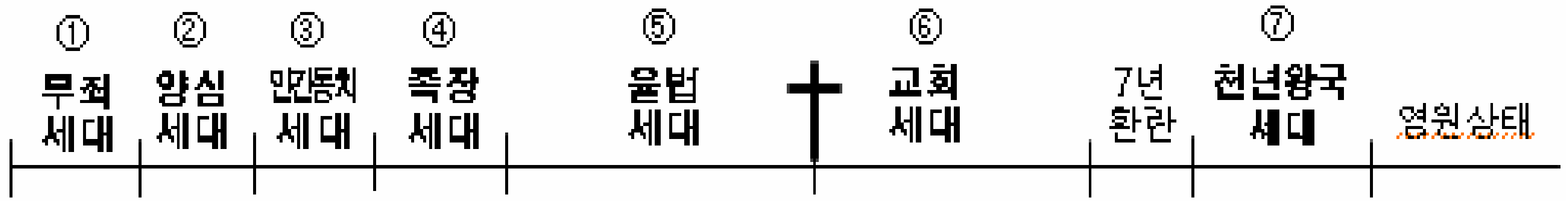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스코필드가 다비의 견해를 이어받아 세대주의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코필드가 발전시킨 세대주의는 언약주의 학자인 **아이작 와츠의 세대구분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다비의 세대적 분별을 일부 수용**해서 결합시킨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스코필드의 세대주의는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과 큰 차이**를 보임

스코필드의 세대주의	=	아이작 와츠의 세대 구분	+	다비의 세대적 분별 일부
		• 와츠의 6세대에 천년왕국세대 추가		•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 • 환란전 휴거 • 전천년주의

스코필드의 세대주의 2

- 스코필드가 쓴 스코필드 관주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을 보면 그는 "**세대**(dispensation)" 를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일정한 기간으로서, 각 세대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어떤 특정한 계시에 순종하는지에 대해 시험을 받는다."라고 정의함
- 그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7개로 세대를 구분했고, 이러한 세대구분은 체이퍼(L. S. Chafer)에게로 이어진 결과 오늘날 많은 세대주의자들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음
- 스코필드의 세대구분을 보면 일곱 번째 세대인 천년왕국을 제외하고는 **와츠의 세대 구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스코필드의 세대주의 3

• **찰스 라이리**(Charles C. Ryrie)는 "Dispensationalism Today"(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정병은 역, 전도출판사)에서 **아이작 와츠의 견해가 스코필드의 세대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음**

천년왕국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 와츠의 개관은 스코필드 관주성경의 개관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것은 **다비의 개관이 아니라 와츠의 개관**이다....다비의 가르침에 대해 한 가지 덧붙여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분명히 스코필드가 취했던 패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일 스코필드가 누군가의 체계를 따랐다면 그것은 **와츠의 체계이지 다비의 체계가 아니었다.** 비록 우리가 다비가 끼친 광범위한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주의가 다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체계가 스코필드에 의해 전수되고 대중화되었다는 그럴듯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하지 않다.**

오늘날 전통적 세대주의가 스코필드의 견해를 기초로 해서
발전해온 점을 생각하면, 초기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과
오늘날의 전통적 세대주의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제2부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의 주요특징

• 다비를 비롯한 형제들이 성경으로부터 조명 받아 정립한 세대적 분별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음

세대의 개념	지상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
교회의 성격	교회는 율법 세대와 천년왕국 세대 사이에 삽입된 지상의 세대가 아니라, 천상적인 괄호로서 하늘에 속한 존재임
두 백성	천상백성인 교회와 지상백성인 이스라엘의 구분
환란전 휴거	미래에 있을 환란기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됨
전천년주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임

세대의 개념

• "세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로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집을 맡아 다스리는 경영, 청지기직**을 의미함

•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경영(경륜)이자 그에 대한 사람의 청지기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스코필드는 앞에서 보았듯이 세대를 하나님의 특정한 계시에 대해 사람이 순종하는지 시험받는 일정한 "기간"이라고 이해했지만, **켈리**는 아래와 같이 세대의 개념에 대해 "청지기직"이나 "경영"으로 이해함

> [켈리] "세대(*oikonomia*)"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기간(**period**)이나 시대(**age**)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기간이나 시대는 신약성경에서 "아이온(*aion*)"이라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다. 세대는 **청지기직** (**stewardship**)이나 경영(**administration**)을 의미하는데….(중략)

세대의 중심요소

• **다비**는 위에서 언급한 세대 개념에 따라, 어떤 특정한 세대에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에 따르는 인간의 청지기적 책임이 다른 세대와 구분되게 나타나는가를 식별하기 위해 다음에 인용한 글과 같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권**(government)"과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중심으로 이 땅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했음

[다비] 우리는 유대 국가의 타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government)의 권리**를 이방인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땅에 대한 통치권 - 가 연합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제껴짐을 당한 순간부터는 구분되게 되었던 것이다...그래서 이 통치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사실상 열방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즉, 교회)이 있다. 하지만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늘에 관련된 것이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열방에 넘어간 적이 결코 없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땅에서 부름 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반항했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열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항했다. 하지만 사실상 폐허의 상태 가운데서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은 항상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

세대의 시작

• 오늘날의 세대주의자들이 스코필드의 견해를 따라 아담의 때로부터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다비와 켈리 등을 비롯한 **초기 형제들**은 노아의 홍수 때 처음 세상이 멸망했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홍수 이후에 지상의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보았음

[다비] 나는 홍수 이전의 상태를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 이때의 일반적인 특징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슬픈 대조를 이룬다. 이때는 대적하는 나라의 적대행위나 타락한 자들의 악에 대항해서 의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통치권이 없었다. 적절하게 말하자면 **홍수 이전의 시대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부 다 세대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다. **노아와 함께 세대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최종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러한 방법은 이 땅에 관한 것이며,** 축복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

[켈리] 이 사건[홍수] 이전의 세상을 세대가 전개되는 때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수이다. **홍수 이전에는 적절하게 볼 때 세대가 없었다.**

교회가 세대인가

• 라이리를 비롯한 20세기 후반의 세대주의자들은 스코필드의 세대 정의 가운데 일정한 기간이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시험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여 세대를 이해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대해 이 땅에서 은혜 아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책임이 시험 받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교회를 세대의 하나로 보지 않은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과 큰 차이**를 보임

교회가 지상의 세대가 아닌 이유

• 교회를 세대의 하나로 볼 수 없는 이유는 (1)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앉게 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입은 **천상적인 존재이므로 지상에 펼쳐지는 세대의 하나로 간주될 수 없다**는 사실과 (2)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이 땅은 변함없이 "이 시대"로 불리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들 수 있음

교회의 천상적 성격 1

-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상적인 존재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5-6)

- 교회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상적 존재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엡 1:3)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히 3: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교회의 천상적 성격 2

- **교회의 천상적 성격에 대해 다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음**

[다비] 적절하게 말하자면 예언 그 자체는 이 땅에 적용된다. 예언의 목적은 하늘이 아니다. 예언은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교회를 오도하게 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지상적인 축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교회의 특권은 하늘에 자신의 유업을 갖는 것이다. 지상의 백성을 향한 축복은 나중에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교회는 이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교회는 천상적인 경륜**으로서,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지상의 백성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 제껴짐을 당해서 열방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상적인 영광을 누리도록 열방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 **교회는 천상적인 존재이므로 지상의 세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초기 형제들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다비]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은 적절하게 말하자면 결코 세대가 아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랜트] 하나님의 천상적인 목적이 나타나는 시기는 세상의 시대들 가운데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1

주님의 시대 구분

• **주님**께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두 시대로 시대를 구분하심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2)

[다비] 이 표현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말이다. 그들은 "이 세상" 또는 "이 시대"라는 뜻으로 *olam-hazeh*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장차 올 시대" 즉, 메시야의 지상적 통치시대라는 뜻으로 *olam-havo*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도들의 시대 구분

•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후에도 여전히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두 시대로 시대를 구분함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엡 1:21)

이 시대와 오는 시대 2

-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해 **다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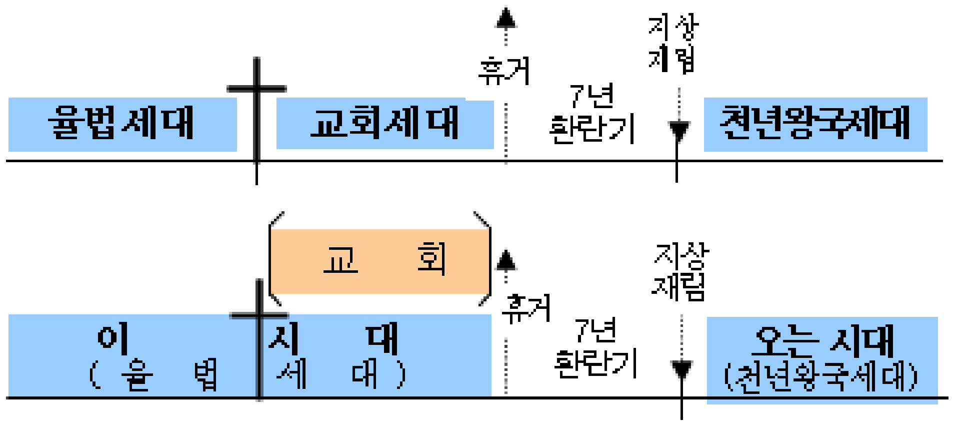
> **[다비]** 참으로 교회는 세대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즉,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야가 “오는 시대”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율법의 시대는 계속되었고, 메시야가 왔지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 섰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교회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엄밀하게 말해 교회가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메시야가 다시 와서 이 시대를 마감하게 되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시대 구분 정리

- 이 시대(this age) : 마 12:32, 고전 2:8, 고후 4:4, 갈 1:4, 엡 1:21, 딤전 6:17, 딤후 4:10
- 오는 시대(age to come) : 마 12:32, 막 10:30, 눅 18:30, 엡 1:21, 히 6:5

천상적 괄호인 교회

- **천상적 괄호**는 이 땅에서 기존의 율법 세대가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말함
-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모세 세대가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천상적인 백성인 교회를 모으고 계시며, 윌리엄 켈리는 이러한 기간을 일컬어 "천상적인 괄호(heavenly parenthesis)"라고 불렀음
-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율법 세대와 천년왕국 세대 사이에 삽입된 지상의 세대라고 보는 반면에, 초기의 형제들은 **지상에는 율법 세대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중에 교회가 천상적인 괄호로서 존재한다고 보았음**



上: 전통적 세대주의자 下: 초기 형제들

환란전 휴거

- **교회의 휴거가 대환란 이전에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천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지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다비는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과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 공중에 오시는 것을 구분했으며, 교회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아니라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말했음**

[다비]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결합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즉,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교회의 위치는 지상이 아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몸으로서도 하늘로 인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남아 있을 수 없으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자신에 대해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아니라(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계신 하늘로 끌어 올려지는 것이다.**

천년왕국

-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 **천상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와 지상백성인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때문임
- 언약주의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구약의 예언이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믿는 반면, **형제들**은 교회는 이러한 예언을 영적으로 성취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상적인 예언들은 **지상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음

> **[다비]** 다윗의 자손의 왕국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백성들을 위해 성취될 것이다.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 백성의 축복을 성취할 것이다. 이 축복은 그 성취가 그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고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원리 위에 놓여 있었다면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다스림은 주님의 손에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 땅의 최고 백성인 이스라엘에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 - 천사들, 정사들, 하늘의 교회, 이스라엘, 이방인 - 이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사단은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의 기반

• 다비를 비롯한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 특징은 교회를 지상의 세대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 **천상적인 괄호**로 보았다는 데 있음
• 이에 비해, 스코필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율법 세대와 천년왕국 세대와의 사이에 삽입된 하나의 세대로 보았음
• 다비가 이러한 분별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진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임
– 다비는 교회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천상적인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음

> [다비] 내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엡 2:6)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신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율법의 요구들 앞에서 지난 6,7년간 괴로워하던 곤고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질문이 사라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엡 2:6)이 분명해졌다.
>
> [다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인식은 **교회가 갖는 영광의 천상적인 성격**을 깨닫게 해 주었다.

*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졸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전도출판사)을 참고바람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 요약

<table>
<tr><th rowspan="2">세 대</th><th colspan="2">중심 요소</th><th rowspan="2">스코필드 세대구조와 비교</th></tr>
<tr><th>지상의 통치권</th><th>지상의 부르심</th></tr>
<tr><td>율법전 세대</td><td>· 노아 홍수 이후 시작됨</td><td>·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됨</td><td>(무죄, 양심세대가 빠짐)
· 인간정부세대
· 족장통치세대</td></tr>
<tr><td>율법 세대</td><td>·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율법의 수여와 함께 시작됨)
· 이방인의 때 (지상적인 괄호)
– 느부갓네살 이후 환란기까지
– 지상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감</td><td>· 하나님의 택하신 지상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부르심
· 천상적인 괄호
– 오순절 이후 휴거까지
– 천상백성인 교회의 천상적 부르심</td><td>· 율법세대
· 교회세대</td></tr>
<tr><td>천년왕국 세대</td><td>·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 왕으로 다스리심</td><td>· 하나님의 택하신 지상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부르심</td><td>· 천년왕국세대</td></tr>
</table>

제3부

파생되는 차이점들

율법관-전통적 세대주의자

-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기존의 **율법 세대를 종결시키고 대체한 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 세대에는 율법이 종결되었다는 견해를 나타냄
- 체이퍼는 현재의 교회 세대에는 **율법이 중단되었고** 오직 은혜의 원리만이 지배한다고 말했으며, 라이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종결**을 가져왔다고 말했음

[체이퍼]
-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이 있다(*Systematic Theology*, 4:111).
- 모세의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신약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ST*, 4:234).
- 이 구절[요한복음 1:16-17]에 따르면 전체 **모세 체계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더불어 성취되었고 **대체되었으며 종결되었다**(*ST*, 4:240).
-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세 율법의 다스림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증거이다(*ST*, 4:240).
- 하나님의 목적에서 볼 때 유대교로 알려진 전체 체계는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현 시대에 걸쳐 **중단된 상태**에 있다(*ST*, 4:248).

[라이리]
- 성경의 모든 해석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세 **율법의 종결을 가져왔다**는 명백한 가르침(롬 10:4)에 직면해 있다.

율법관-초기 형제들

• 다비를 비롯한 **초기의 형제들**은 교회를 지상의 세대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 천상적인 괄호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율법 세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았음

• 형제들은 **율법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으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준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냄

> [다비]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원리가 율법에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전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라고 되어 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율법이 간수라면 나는 죄수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들이 죄수 대신에 간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간수는 죽지 않았고, 죄수가 죽었다**(*Collected Writings of J. N. Darby*, 21:199).

• 형제들은 율법은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을 통해 거룩을 달성하려는 원리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되심으로써** 신자의 삶에 거룩이 이뤄진다고 믿었음

• 반면에, **개혁주의자들은** 율법이 살아있다고 이해하면서 **율법이 신자의 삶에서 거룩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음

구원: 전통적 세대주의자 vs 초기형제들

전통적 세대주의자

• 라이리를 비롯한 오늘날의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내용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보면서, 구원 얻는 믿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자되심은 물론 주인되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음

• 체이퍼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교회 세대에는 행해져서는 안된다고까지 말함

–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인되심과 율법을 통해 죄로부터의 회개를 말하는 것은 교회 세대가 아니라 율법이 살아있는 천년왕국 세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봄

초기 형제들

• 하지만, 다비를 비롯한 **형제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되심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자되심과 주인되심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 또한 형제들은 지상에는 여전히 율법 세대가 진행중이므로 율법은 살아있으며, **죄인들에게 분명한 회개와 회심을 선포해야** 한다고 보았음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에 대한 형제들의 언급-다비

- **다비는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봄**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주(主)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종의 정의이다("Notes of Readings on 1 Corinthians", *Collected Writings of J. N. Darby,* 26:252)

-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에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비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함**

“퀴리오스(κὐριος)”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용례는 신약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은 항상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했고,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관사 없이 “퀴리오스”로 번역되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용례는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심”의 위치**에 세워진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主)**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1),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主)**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고전 8:6) 이러한 진리는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취하신 위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불러왔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主)** 곧 저희와 우리의 주(主)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고전 1:2) “**주(主)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에 대한 형제들의 언급-매킨토시

• **매킨토시**는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주인되심과 사람의 책임을 빼버리면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희석시키게 된다고 보았음

회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로 해방받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것이다. (중략)

우리의 <u>주인이요 구원자</u>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된 섬김이야말로 완전한 자유이다. **<u>그리스도의 주인되심</u>**에 관한 진리를 가르침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신약성경을 열어보면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主)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主)가 되려 하심이니라"(롬 14:9) "우리의 주(主) 곧 저희와 우리의 주(主)되신 예수 그리스도"(고전 1:2) (중략)

그들은 복음적이라고 하지만 나태하고 세속적이며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 그들의 복음은 희석된 복음이다. 그들의 복음은 힘과 권위와 영광을 잃어버렸다... 많은 경우에 그들이 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매우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복음은 듣는 자의 귀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u>주인되심</u>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무나 요구, 책임과 같은 단어들은 율법주의의 냄새가 난다고 한다....우리는 이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원한다. 우리는 "**<u>구원자와 주인</u>**"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끊을 수 없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음을 원한다.("Jesus, A Deliverer and Lord", *Handfuls of Pasture,* 2:101, 104-105).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에 대한 형제들의 언급-해리스

• 초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해리스**(J.L.Harris) 역시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분리하는 것이 일종의 악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입어 성도가 된 자들과 각처에서 저희와 우리의 주(主)가 되신 우리 주(Lor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해 증거한 내용이 포함된 이러한 성경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자(Saviour)되심과 주인(Lord)되심의 분리할 수 없는 연결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主)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되심(Lordship)에 대한 것이다...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Saviour)와 주인(Lord)**으로 기꺼이 고백하게 되었다. (중략)

그러므로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주인되심(Lordship)을 분리시키게 되면 악의 가장 나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유다서에서 유다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고 권면해야 했을 때, 그가 지적한 타락의 원리는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분리시키려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인되심(Lordship)을 부인했으며, 이렇게 해서 모든 권위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회개-전통적 세대주의자들

• 초기 형제들은 죄인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죄된 행실을 판단하는 “회개"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을 강조했음

• 하지만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단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이므로 믿음과 동의어이거나(라이리)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체이퍼)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 **죄로부터 돌이키는 태도 변화가 믿음 외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음

– 라이리는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음

>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종류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울 수도 있고,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들로부터 돌아서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각 장소와 각 시대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유일한 종류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죄와 슬픔의 감각은 사람의 생각이나 양심을 일깨워서 그로 하여금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구원은 없는 것이다.

회개-초기 형제들

- **형제들**은 "회개"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때 나타나는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심판의 태도로 보았고, "회심"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죄인들에게 **회개와 회심을 강조**했음
- 매킨토시는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들은 회심의 참된 성격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데살로니가의 회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신 일의 깊이와 명확함, 충분함, 그리고 실제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살전 1:9-10) (중략)

참된 회심자는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고** - 세상과 단절하고, 이전의 자기와 단절하고 -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없는 모든 것을 그 분 안에서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회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참되고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회심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 회심한 것이라면, 당신의 삶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복음전도의 잘못들1-맥도날드

• 20세기 후반의 성경학자 **윌리엄 맥도날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온 자신과 주변의 경험을 토대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범했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오늘날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세계에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다...회심자들이 믿음에 잘 붙어있지 않았다. 전도의 열매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중략) 사람들을 영적인 출생으로 인도하는 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잘못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복음전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다구요?"
"네, 성경말씀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방법과 메시지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위의 메시지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치명적인 오류는 **회개에 대한 강조가 빠져 있다**는 데 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참된 회심도 불가능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성령께서 내 삶에서 죄를 인식하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중략)

복음전도의 잘못들2-맥도날드

두 번째 심각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에 대한 강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Savior)라고 가볍고 즐겁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주인(Lord)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Savior)가 되신다. (중략)

위의 메시지에 담긴 세 번째 오류는 **제자로서 살 것에 대한 요구를 복음전함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결정을 할 때까지 감추는 경향**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면류관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포함하고 있었다. (중략)

여기서 나는 복음전도의 전략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우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될 때 곧바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중략)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복음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적합한가?** (중략)

셋째 질문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내리라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압력을 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중략)

우리는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교리적인 건전한 기초를 놓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즉, 죄에 대해 완전히 얼굴을 돌리는 회개를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참된 믿음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주시기를 기꺼이 기다려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른 바 회심자들의 숫자보다는 작은 수를 얻을 지라도 더욱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파생된 차이점들 요약

- 오늘날의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자되심과 주인되심을 분리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에는 구원자되심만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고 믿는 것은, 교회를 율법 세대를 종결시킨 지상의 세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즉, 그들은 교회가 율법 세대를 종결시킨 세대이므로 현재 율법은 죽은 상태이고, 따라서 은혜 세대인 지금은 구원 얻기 위해 믿기만 하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초기의 형제들**은 교회는 지상의 세대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에 앉아 있는 천상적인 괄호**이고 지상에는 여전히 율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율법은 종결되었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여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자되심과 주인되심**을 분리시키지 않았으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을 강조하였음

- **성경**은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수준을 보여주면서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구하지만 의롭다함과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형제들의 이해가 이러한 성경과 일치하는 견해임

결론

• **전통적 세대주의**는 20세기 전반에 자유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일어난 근본주의의 토대를 이루었고, 20세기 후반의 복음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따라서 복음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복음주의 전반에 상당히 남아 있으며, 심지어 형제교회에까지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성경**은 죄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
• **초기 형제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함을 통해 전천년주의, 환란전휴거를 지지하는 세대적 분별의 기초 위에서 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강조하고, 율법은 살아 있으나 신자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설파하는 등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죄, 구원, 성화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구원과 성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보다 성경적인 교훈이 절실한 지금 이러한 **형제들의 견해는 올바른 교훈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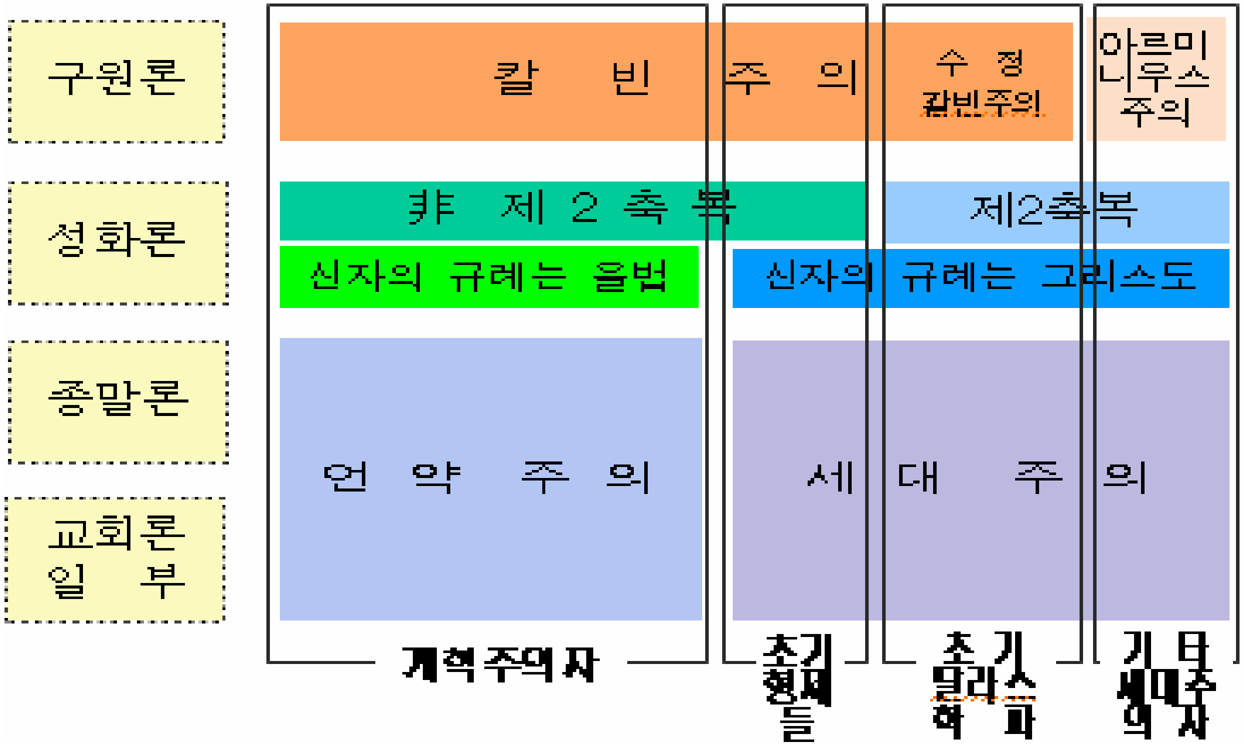
부록

초기 형제들의 분별의 교리적 위치

교리 영역별 다양한 견해들

- **세대주의는 엄밀하게 볼 때 <종말론과 교회론>을 다루는 체계임**
  - 이 영역에서 세대주의와 대비되는 사상은 언약주의라고 할 수 있음
  - **세대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환란전휴거론)을 지지하는 반면에, **언약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환란후휴거론)를 지지함
- **<구원론>의 영역에서는 크게 보아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대비를 이루고 있음**
  - 세대주의자 가운데는 칼빈주의자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모두 존재함
  -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택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다고 믿는 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사람이 타락하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원은 인간의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았음. 즉,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견해임
  - 초기 형제들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특정한 교리체계를 무작정 추종하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한 분별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르미니우스주의보다 **칼빈주의 체계에 아주 가까운 분별**을 나타내었음
- **<성화론>의 영역에서는 제2의 축복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신자의 삶의 규례를 율법으로 보느냐 또는 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사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초기 형제들**은 제2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체이퍼나 라이리** 등의 세대주의자들은 제2의 축복을 인정하고 있음

초기 형제들의 분별의 교리적 위치



- **초기 형제들은 종말론과 교회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 분별을 견지했고, 구원관에서는 칼빈주의와 거의 일치했으며, 성화관에서는 제2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자의 삶의 규례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었음**

  – 학문적 분야에서 세대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강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였거나 제2의 축복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함을 볼 때, 이러한 초기 형제들의 분별은 성경적인 교리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